

(...8페이지에 이어) 피해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도 했다.

정의연은 윤 당선자 개인 계좌 사용에 대해 "개인모금은 기부금품모집법(2017년 시행)이 제정되지 않았고 시행 이후 해당법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모금 개인계좌로 받은 윤미향, 회계부정은 자동 퇴출 대상"

"30년 위안부 운동 무력화 시킨 건 윤미향과 정의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해체 주장했겠느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에 대해 "윤 당선자와 정의연이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도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계 부정 단체는 국제 시민사회에서 자동 퇴출 대상"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30년 위안부 운동을 무력화시킨 건 공사 구분도 못 한 윤미향과 정의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기부금 관련) 위법 여부를 검찰에 고발돼 있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

이라며 "하지만 최소한 윤 당선자와 정의연연대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 핫 이슈를 다루면서도 공사 구분조차 못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윤미향 개인과 정의연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위안부 운동의 도덕성에도 큰 오점을 남겼고, 지지에 온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상실감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 당선자 국회의원 안 된다 하고 정의연연대 고쳐서 못 쓴다며 해체까지 주장하셨겠느냐"며 "진실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다"고 했다.

중의 '1100만명 코로나 검사'



바이러스엔 특정 동물만 감염시키는 '숙주 특이성'이 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사람 말고 다른 동물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낙타나 쥐, 유럽 산토끼에만 치명적이지 사람은 걸려도 멀쩡한 바이러스도 있다. 코로나도 원래는 이런 종류였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메르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더니 최근엔 동물원 호랑이·사자, 유럽밍크, 강아지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어제는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집고양이 사이 감염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 바이러스 전문가는 "코로나 전체가 점점 오싹해진다"고 했다.

에서만 100명 넘는 아이가 감염돼 세 명이 숨졌다. 20대 스포츠 선수가 코로나에 걸려 그제 숨지자 일본이 발각 뒤졌다.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은 '돌아온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다. 4만명 넘게 감염돼 4000명 가까이 숨졌는데 최근 며칠 새 수십 명 새 감염자가 나왔다.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중국 당국은 '열흘간 우한 주민 1100만명 전수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검사 능력은 미국의 일평균 30만명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그래도 하루 110만명은 어렵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최대가 하루 2만명 안팎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서 매독이 유행했다. 수천명 군인을 상대로 일일이 테

스트해야 하는데 시간·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이때 미 경제학자들이 '취합 검사법'을 내놨다. 조사 대상을 여러 집단으로 묶은 뒤 한 집단에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그 집단의 감염 여부부터 가리는 방식이다. 음성 반응이 나온 집단은 그냥 넘어가고, 양성 집단 소속 인원만 1대1 검사하면 된다. 우리 국방부도 대구·경북 훈련병을 네 명씩 묶어 검사한 적이 있다. 최대 32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도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학교 교사, 국군 장병 같이 우선 조사가 필요한 집단 100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도해볼 만하다. 지난 10월 말 검사받은 71만명 가운데 1만명(1.5%)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율 1.5% 가정 아래 100만명을 10명씩 10만 집단으로 나누면 확률적으로 2차 검사 대상 집단은 1만4000개 내외가 나온다. 이 집단에 10명씩 소속된 14만명 모두를 검사해 실제 감염자를 가려내면 된다. 이럴 경우 총 검사는 1차 집단검사 10만 차례, 2차 개별검사 14만 차례를 합해 24만 건이다. 하루 2만 건 검사 능력이면 12일이면 된다. 감염자를 신속하게 가려내 확산을 막고 자신이 감염됐는지 불안해하는 국민 심리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선관위가 '정권 하수인'으로 비치면서

생긴不幸

여당이 야당이고 이 정도 의혹이면 전국에서 진보세력은 촛불을 들었을 것 지금은 보수끼리 갈라져 서로 비방만

민경욱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의 증거로 비례투표용지 여섯 장을 흔들었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진지한 뉴스가 아니라 한낱 가십거리였다. '빠박(빠도 박도 못 할) 증거를 내놓겠다'고 한 공언에 비해 사소한 의혹들만 나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별로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처음으로 얻어듣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선관위는 비례투표용지 여섯 장에 대해 '어느 동 투표구에서 나온 잔여 투표용지'라고 인정했다. 분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거 영상에 나온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그다음부터는 자기 위주의 해석이다. '잔여 투표용지 등이 들어있는 선거 가방을 개봉소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 불상자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

투표용지에 발이 달린 것이 아니니 누군가 들고 나갔을 것이다. 선관위가 이를 탈취라고 표현한 게 흥미롭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몇 조, 형법 몇 조 등의 위반..."이라고 나열한 것은 민 의원이 범법자의 장물(贓物)로 회견소를 했다는 암시다. 이는 정치판의 프레임 전환 수법과 비슷하다. CCTV가 설치 안 된 장소에 투표용지를 보관한 것이나 이를 감시할 경비를 세우지 않은 선관위의 관리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개표된 사전투표지가 '삼립빵 상자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답했다. 범으로는 개표된

투표지는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에 다시 넣어 봉인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투표함을 다음 선거에도 써야 하는 현실적 이유로 투표지 보관 상자로 대체해왔다.

사전선거가 끝나면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수는 집계된다. 그 숫자에 맞춰 보관 상자가 나중에 몇 개 필요할지 대략 계산이 나온다. 나흘 뒤 개표가 이뤄졌다. 투표수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개표된 투표지들을 담은 보관 상자가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도봉구갑 선거구에서는 개표된 투표지를 담은 삼립빵 상자가 10여 개나 나왔다.

선관위는 "서울 도봉구선거구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상자의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일선 직원의 실수로 필요분 상자 숫자를 잘못 계산했을 수는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는 아무 관련 없었다. 고의든 착오든 선관위가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다.

다른 몇몇 선거구의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에서도 삼립빵 상자들은 발견되고 있다. 소시지를 끼워서 먹는 빵 제품을 담은 상자라고 한다. 개표 과정에서 간식용으로 제공될 빵은 아니었다. 게다가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지가 전혀 접착력이 없어 너무 쉽게 떼어진다고 한다. 보수 유투버들은 이게 결정적 증거라며 '삼립빵 게이 트'라고 부르고 있다.

선관위는 분당구를 개표 과정에서 서초구를 사전투표지 1매, 분당구갑 투표지 9매가 발견된 사실도 인정했다. 이쪽 선거구 투표지가 어떻게 저쪽 선거구로 가 있을까.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선관위도 설명을 못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하나 더 많이 나온 투

표소들이 여러 곳 있었다. 충남 부여 선거구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나온 득표수가 이상해 재검표를 하니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은 어쩌면 단순 사무상 착오일 수 있다. 전국에서 술한 사람들이 관여돼 있으니 자기도 모르는 실수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과거 선거에도 그랬겠지만 대략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사건 하나 하나가 선거 부정부패의 단서처럼 확산되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100% 선관위 책임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조해주 씨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면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 이번 총선은 주요 결정을 내리는 선관위원 9명 중 2명이 결격한 상태로 치러졌다. 이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야당이 추천한 국회 및 선관위원 후보를 여당이 비토했기 때문이다. 그 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비례 정당 명칭을 퇴출시켰고,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현수막은 허용해주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야당 쪽 현수막은 불허했다.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인상을 준 것이다.

선거에는 '대표자 선출' 못지않게 '사회 통합'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서로 의견이 달라 맞붙었다가 선거를 통해 승복하는 것이 다. 안 그러면 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 힘센 놈이 다 갔고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선거의 통합 기능이 이번에 완전히 와해했다.

만약 여당이 야당이고 이 정도의 의혹이었으면, 전국에서 진보 세력들은 밤마다 촛불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놓고 보수 진영만 갈라져 있다. 감정적 언어로 서로 조롱·비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론은 멀찌감치 구경을 즐기는 중이다. 착잡한 심정이다.

'웬비어 가족'의 투쟁

유태인 학살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1946년 연합군 감옥을 탈출해 사라졌다. 게슈타포 총책임 "우리에게 50명의 아이히만이 있었다면 유태인을 절멸시키고 승리했을 것"이라고 했던 인물이다.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은 곧바로 뒤를 쫓았다. 1960년 5월 이스라엘 총리가 "아이히만을 체포해 암살했다"는 짤막한 발표를 했다.

10년이 넘는 추적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해 끌고 온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할 정도로 반발했지만 이스라엘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1962년 한밤중에 처형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숨은 나치 전범을 찾고 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팔레스타인 '검은 9월'의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은 보복 암살 작전에 돌입했다.

파리·아테네·베를린을 살살이 뒤지며 응징했다. 테러범 전원을 암살하는 데 7년이 걸렸다. 2004년 팔레스타인 지도자 아라파트가 '독살'된 배후에 모사드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유태인은 당하면 잊지 않고 되값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변호사 니트사나는 북한 권력의 범죄를 밝히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데 20년 가까이 뛰고 있다. 북한에 끌려가 살해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을 도우려고 북 선박 압류 소송전도 벌였다. 배를 경매로 팔아 유족 배상금을 마련하려 했다. '유태인이 왜 북한과 싸우느냐'는 물음에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안보의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공항에서 수류탄을 던진 일본 적군과 중동 테러 단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이다. 북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도 받았지만 '유태인 사전에 포

기는 없다"고 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웬비어도 유태인이다. 그의 부모가 미국 내 은행들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냈다고 한다. 아들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배상금이 될 수 있다. 유태인 어머니는 "북한은 (억류할) 아이를 잘못 골랐다. 죽을 때까지 북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미 정가와 유태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해외 은닉된 북한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베를린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하던 호스텔도 독일에 소송을 걸어 중단시켰다. "북이 똥통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부유한 웬비어 부모가 돈 욕심으로 이러는 건 아닐 것이다. 한 가족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폭력으로 빼앗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무도한 집단에 대한 분노이자 투쟁일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Shaw 가입 한국어로 편하고 빠르게 하세요~

Shaw) TV, 인터넷, 전화 가입/설치 문의 한인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출시!
음성인식 가능한 BLUE SKY TV 출시!
Shaw go wifi로 무료 와이파이 가능!

설치비 무료!
약정/무약정 선택 가능!
HD PVR 무료 렌탈!
저렴한 가격!

서명환 403-919-0754
카톡아이디 shawcalgary 이메일 eric.seo@sirb.ca

Shaw)